

46

절단 및 용접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절단/용접 작업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나○○(남, 45)는 1987년 고철 절단업체인 ○기업에 입사하여 고철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던 중 2003년 7월 3일 급성 천식 발작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나○○는 29세 때인 1987년 4월 27일부터 용광로에서 용해할 수 있도록 3교대로 수동 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고철을 절단하는 작업을 9년 3개월 간 하면서 절단작업 중 절단기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절단기를 보수하면서 용접도 하였다. 1996년 8월 1일부터는 계속 주간근무를 하면서 초기 8개월 간은 전기로에서 용해할 수 있도록 고철을 절단하는 전처리설비의 설치공사 감독을 하였고,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전처리설비의 보수/정비를 담당하는 주임으로서 현장 사무실에서 자료정리 등 업무와 현장작업을 감독하였는데 주당 1시간 정도는 용접을 직접 하였다. 용접시 사용한 용접봉 일부에는 니켈 및 크롬이 함유되어 있다. 나○○는 1979년 8월부터 6개월 간 직업훈련원 용접과를 이수하고 1980년 3월부터 3년 5개월 간 H중공업(주)에서, 1984년 1월부터 3년 3개월 간 H건설(주)의 광양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1992년 4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호흡곤란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S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에 준하는 치료를 하였는데, 초진 의무기록에 의하면 5년 전에도 호흡곤란이 있었다 한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약하다가 2001년 4월 16일부터는 G병원 외래에서 투약하면서 호흡곤란 발작이 있을 때 응급실에서 치료하였다(2001년 6월 14~18일, 2002년 7월 26~30일 입원 치료함). 2003년 4월 17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 55분까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서 치료한 후, 4월 24일 전처리설비 정비 작업 감독 중 호흡곤란으로 오후 5시 40분에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4월 25일 오전 1시 45분까지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하여 11시경부터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시 35분경 사무실을 나가 병원으로 가던 중인 4시 45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4시 50분경 G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4 결 론

나○○는

- ① 천식 발작으로 사망하였는데,
- ② 입사 전 총 7년 2개월 간 수행한 용접작업이나 입사 이후 수행한 고철 절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천식이,
- ③ 사망 전 6년 간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출입하면서 간헐적으로 직접 수행한 용접작업에 의해 악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업성 천식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